『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41~73

다문화사회의 갈등분석과 통관문화적 언어소통 모델개발*

이장형(백석대학교 교수)

I.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연구의 필요성

II. 인식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

III. 다문화 속에서의 갈등 전개 양상과 극복방안
1. 내면적 갈등
2. 가족 갈등
3. 사회적 갈등

IV. 다문화사회 발전의 단계적 접근과 통관문화적 적용 모델

V. 결 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08- 327- A00853)

www.kci.go.kr

• ABSTRACT •

Korean Society is changing into multicultural society rapidly. The researcher got reasearching analysis on the cognition of multicultural changing.

1) There is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consciousness in Korea. But we can see a acceptable attitudes of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hanging.
2) Citizenship for immigrant people and children, employing English as official language, internet broadcasting using the mother tongues.
3) In spite of the positive attitude of immigrant, there are knowledge shortages of 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exchange.
4) Internal or external conflicts are on an increasing trend and serious social problem of Korean society.

How can solve the problem of various conflicts.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four developing models with transcultural cognition spread, understanding education, language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experiences.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official language, internal or external conflicts, transcultural cognition spread, language communication

www.kci.go.kr

I.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 연구의 필요성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로 보이던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1] 2009년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10만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통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3개 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이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제 국가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사회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연구와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 사회를 인식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실제적인 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극복하며 소통이 잘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전제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연구 결과, 다문화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과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이 중요함을 파악하게 되었다. 즉 배우고 경험한 바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행동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도상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별히 한・미 FTA 타결과 이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유럽공동체 FTA, 한・중 FTA, 한・일 FTA 등은 한국사회를 다문화국가로 급속하게 몰고 갈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라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1)다문화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이 강조된

1) 통계를 보면 2002년 34,710명이던 국제결혼이민자가 2008년에는 121,168명으로 증가되었다. 2007년에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3만8천여 건으로, 전체 결혼의 1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농어촌에서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www.kci.go.kr

“다원문화사회”라는 개념이고, 2)인구학적 구조와 변동의 의미가 강조된 “다민족(인종)사회”라는 개념이다. “다원문화사회”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가 나름의 독자성을 가지고 상호존중의 원리 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독자성, 상호 존중, 평화로운 공존이 전제된 다원문화(multi-intercultural)사회는 단일 지배문화(mono-imperial-culture)의 반대 의미로서, 주변과 중심문화, 주류와 비주류문화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문화가 중심문화로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다민족(인종)사회”는 한 사회의 태생과 유지가 다양한 종류의 인종과 민족구성에 기초해 있거나, 역사와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정주형(定住形) 외국인들의 숫자 또는 외국인과 본국인이 결합한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인구학적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다문화 관련 논의는 문화의 다양화라는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수적 확대 등 인구구조 차원의 변동, 즉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민족(인종)적 사회로의 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은 결국 함께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대비 장기체류(등록)외국인 비율

구 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등록 외국인	40,519명	40,920명	49,507명	110,028명	210,249명	510,509명	724,967명	854,007
국 민	38,123천	40,805천	42,869천	45,092천	47,008천	48,294천	49,134천	48,607천
대비(%)	0.10	0.10	0.11	0.24	0.44	1.05	1.48	1.75

(자료: 법무부 외국인정책위. 2007)

다문화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 연구자는 갈등 극복의 과제를 기독교와 관련시켜 풀어 보고자 시도하였다. 다문화사회가 갖고

www.kci.go.kr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문화와 공존하고 있다. 문화를 외면한 기독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 즉 다문화는 현 시대 문화의 중요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기에,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문화와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II. 인식조사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

연구자는 2009년에 성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5문항의 기초조사와 14문항의 인식조사 설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전국에 걸쳐 213명의 응답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인식조사를 통해 "다문화, 다민족화는 필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화를 받아들이는 정도 등에 대해 물었다. 전체 응답자 213명 중 39명(18.4%)은 매우동의, 94명(44.1%)가 동의하는 편이라 응답했고, 18명(18.4%)은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명(1.4%)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화에 대해서 상당수가 절실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의 정도, 갈등의 종류와 원인 등을 찾아보며, 갈등 분석과 소통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한다.[2)]

2) 설문조사의 한계상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직접적인 질문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로 인식과 관련된 문제로 제한하였음을 밝힌다. 해석의 요약은 빈도조사의 통계를 그래프로 제시하였고, 문장 서술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경향성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교차 분석 내용은 논문의 전개상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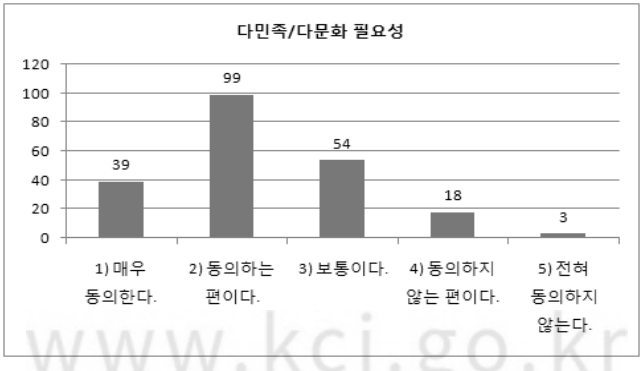
www.kci.go.kr

(기초조사)

1. 성별 : 다문화 인식 조사에 따른 성별 조사는 남 103명(48.6%),여 109명(51.4%)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 다문화 인식 조사 응답자 중에 연령별로 총 212명중 만 19세~29세 인원이 82명(38.7%)로 가장 많고,만 40세~49세 인원이 44명(20.8%)로 나타났다.
3. 학력 : 다문화 인식 조사 응답자 중에 학력별 분포도는 총 204명 중 대졸이상 91명(44.6%)로 나타났다.
4. 현재 거주 지역 : 다문화 인식 조사 응답자 중에 대도시군이 97명으로 (45.8%)차지했고, 군이하 응답자도 20명(9.4)로 나타났다.
5.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다문화 인식 조사 중 해외 체류 응답자 중에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 176명(83%)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인식조사)

1. 다문화, 다민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인식 조사 문제의 정체성 질문 중 다민족화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 213명 중 99명(46.5%)가 동의하는 편이라 응답했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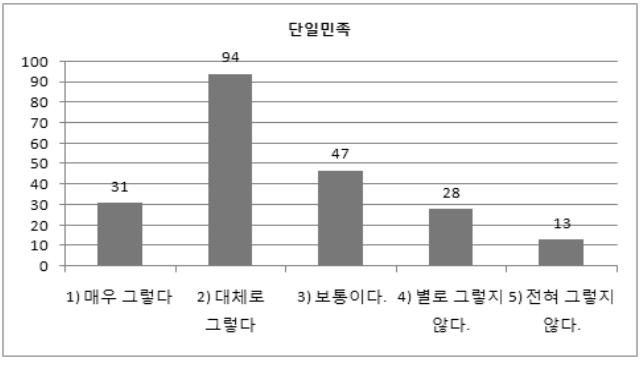


www.kci.go.kr

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3명(1.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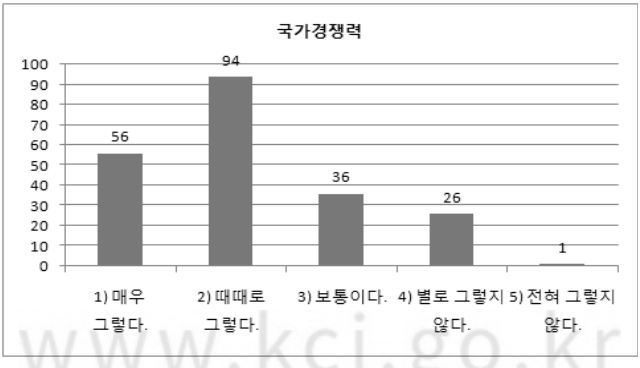
2.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봅니까?

다문화 인식 조사 문제 중 정체성 질문에 우리 민족 단일민족이라는 응답자 213명 중에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자 94명 (44.1%)를 차지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13명(6.1%)로 나타났다.



3. 우리나라의 인종, 문화의 다양성이 커지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정체성 질문 중 인종,문화의 다양성이 국가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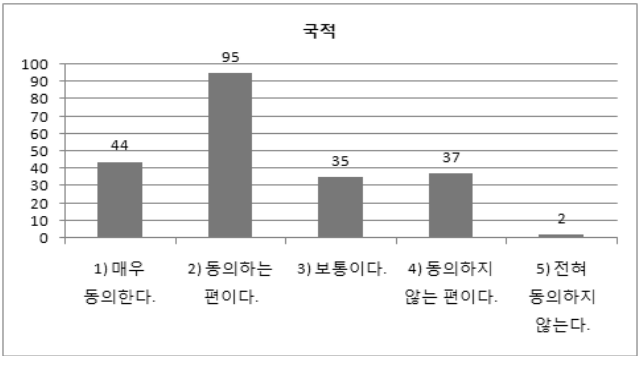


www.kci.go.kr

력 역할에 대해 얼마나 기여 되는지에 대한 응답자 중에 때때로 그렇다는 응답자가 94명으로 44.1%로 차지 했으며,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6명 12.2%으로 나타났다.

4.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부모의 인종, 민족과 무관하게 국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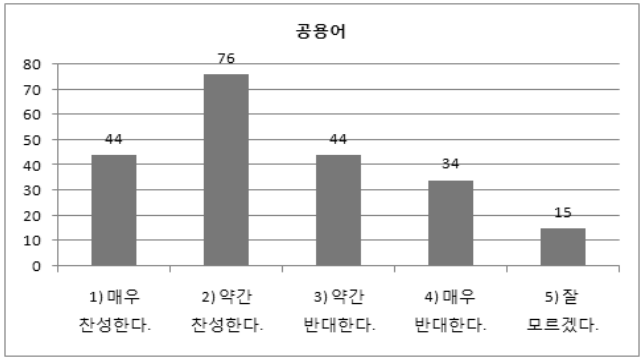
다문화 인식 문제의 정체성 질문 중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의 인종과 민족에 무관하게 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질의에 동의하는 편이다의 응답이 95명(44.6%),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2명(0.9)로 나타났다.



5. 한국어 이외의 공용어(영어 등)를 인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언어관련 질문 중 자국어 외의 공영어를 인정하자는 질문에 약간 찬성한다라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213명 중에 76명(35.7%),매우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4명 (16%)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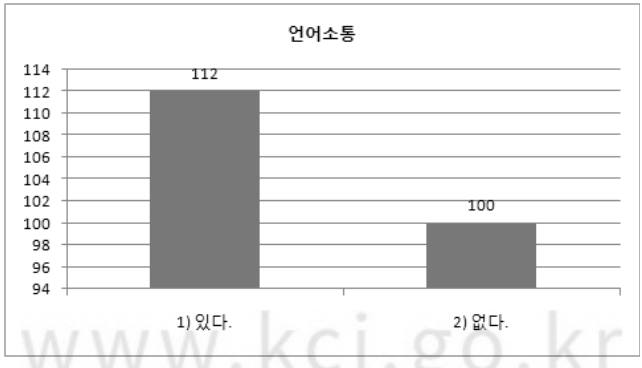


6.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내에서 순수 학습목적 외에 외국인과 '언어소통'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언어관련 질문 중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국내에서 학습 목적외 언어소통을 시도해 본적 있냐는 질문에 전체 213명 중 있다의 응답자가 112명(52.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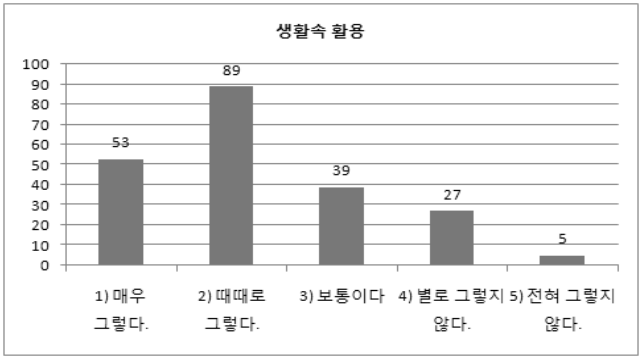
7.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싶습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언어관련 질문 중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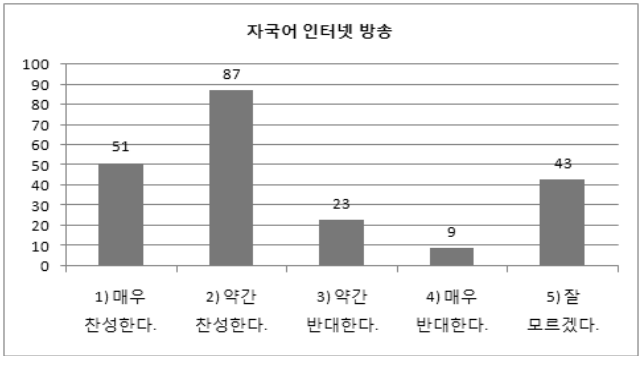
www.kci.go.kr

생활에 활용하고 싶냐는 질문에 때때로 그렇다는 응답이 89명(41.8%)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5명(2.3%)나타났다.



8.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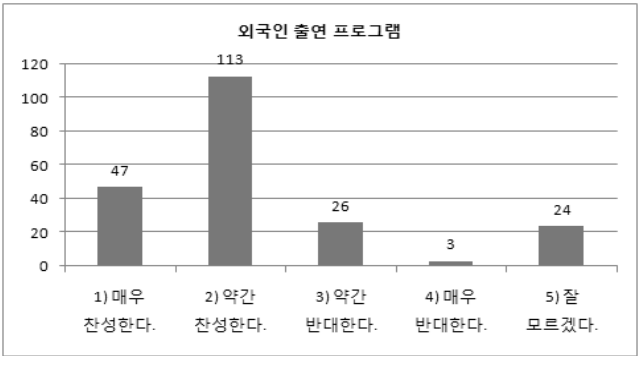
다문화 인식 문제의 언어 관련 질문 중 외국인이 자국어로 인터넷 방송 진행에 대해 약간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제응답자 중 87명(40.8%)이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43명(20.2%)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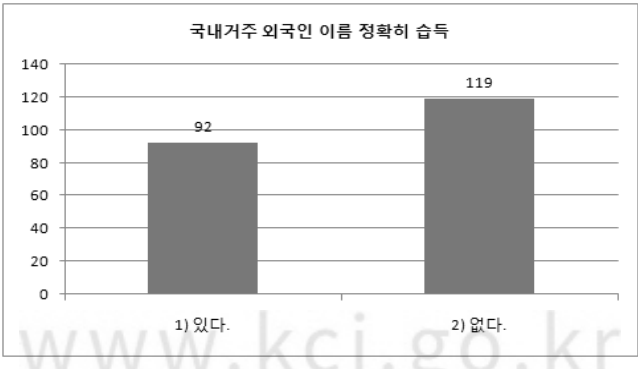
9. 공중파 방송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언어 관련 질문 중 외국인의 공중파 방송 참여에 대한 인식도에서 약간 찬성하다는 응답이 113명(53.1%)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24명(11.3%)으로 나타났다.



10.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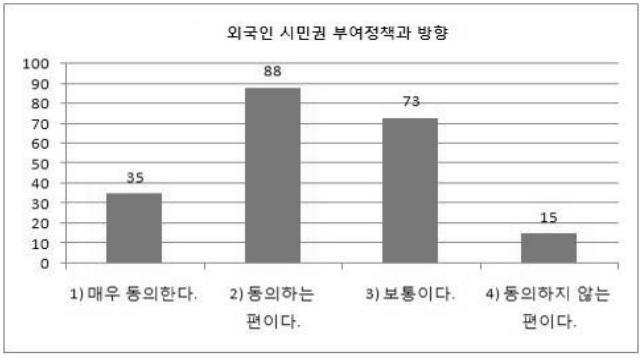
다문화 인식 문제의 생활관련 질문 중 국내거주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이 알고 있냐는 응답 중에 없다가 전체 211명 중 119명(56.4%)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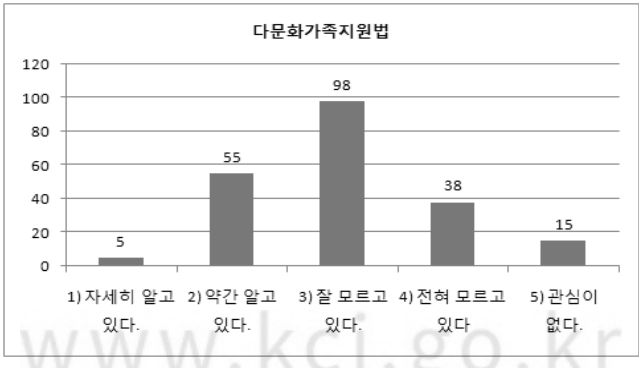
11. 국내거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생활관련 질문 중 국내거주 외국인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88명(41.7%)으로 나타났으며,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의 응답도 15명(7.1%)로 나타났다.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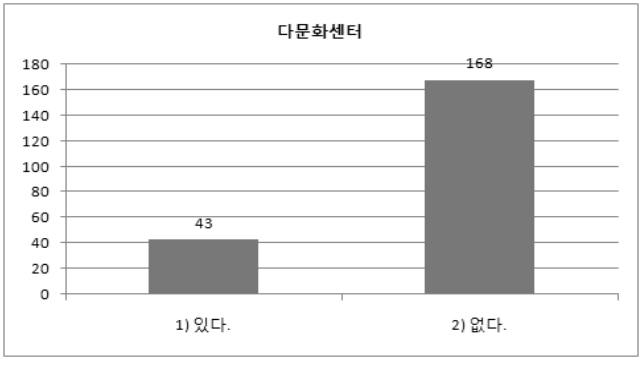
다문화 인식 문제의 생활관련 질문 중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211명 중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98명(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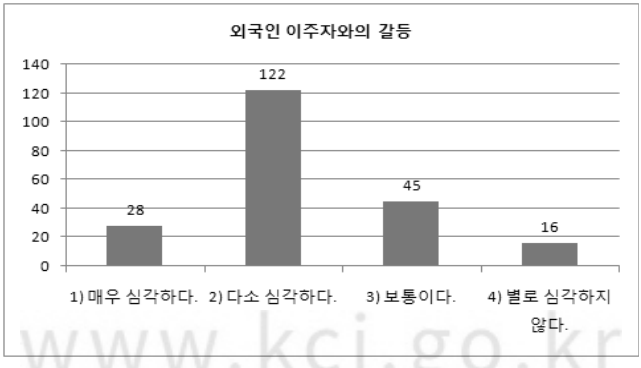
www.kci.go.kr

를 차지했고,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5명(2.4%)으로 나타났다.

13. 주변에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생활관련 질문 중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없다라는 응답이 168명(79.6%)나타났다.



14.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인식 문제의 생활관련 질문 중 외국인 이주자들과의 관계갈



www.kci.go.kr

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대한 질문에 다소 심각하다는 인식 전체 122명(57.8%)를 차지했고 전혀 심각않다는 응답도 16명(7.6%)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인식조사 설문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 및 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에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다민족 및 다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사회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를 경험한 것은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닌 외세의 침입이나 강점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 거주, 징용, 징병 등이나 개발 독재 기간의 외국인과의 만남 혹은 이민, 취업 등은 서세동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 민족이 배타적일 수 있다는 예상 혹은 편견과는 다르게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한국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 대한 국적 부여, 외국어의 공용어 인정 가능성과 활용, 외국인들의 자국어 방송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중파 프로그램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다인종, 다문화적 경향성이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된다.

셋째로, 다문화의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에 비해 실제적인 외국인과의 교류,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에 있어서는 20%만이 예라고 대답하고 있다.

넷째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른 갈등 발생에 대해 대다수

www.kci.go.kr

가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생각은 7.6%에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가 다소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다문화 속에서의 갈등 전개 양상과 극복방안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갈등은 본성에 기인하는 내면적 갈등에서부터 시작하기에, 갈등은 인간이 풀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순한 인격적, 내면적 갈등을 넘어서는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사회 대 사회의 갈등, 혹은 문화와 문화의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다원 사회의 어려움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화 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양상들과 그 원인들을 잘 해석하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한 사회의 성숙하고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7년 12월 발표된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는[3], 한국 사회 속에서의 이주의 증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소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이주의 증대와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을 제시하고, 기존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네 가지 차원으로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을 측정하였다고 한다.[4] 언급된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사회에서 혈통적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2007년12월 28일 발행)을 참고하였음.

4) ①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② 국민 정체성과 시티즌십(citizenship), ③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대한 태도, ④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www.kci.go.kr

유대감에 기인한 정체성 강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이고 예민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면에는 포괄적인 면에서 피해의식이 전제된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차원의 갈등 양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자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내면적 갈등, 가족 갈등, 사회적 갈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식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분석과 이해를 위해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 내면적 갈등

내면적 갈등이란, 곧 정체감의 혼란에 기인한 갈등과 혼란을 말한다. 즉,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민족적, 인종적으로 다른 부모를 접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이다. 물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이주민 대다수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갈등의 양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항상 다양한 복수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문화의 특성 중 하나가 그 복수성에 있기에, 문화 변용, 교류, 습합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문화 연구는 복합적이며 학제적인 연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안용성은 문화의 학제간 연구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일반적 분류가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 사회 현상의 어느 한 측면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쳐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학, 심리학, 철학, 문학, 문화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 간 분업 체제 속에서 문화를

www.kci.go.kr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5] 이런 면에서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은 문화와 이데올로기는 사실 문화연구사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문화연구'라는 명칭은 영국 버밍험대학교의 현대문화연구소에서 유래했는데, 특히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은 신좌파 운동이라고 불리는데서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재고에서 시작하여 지배계급의 의지뿐 아니라 대중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종류의 관념들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홀은 이데올로기 개념을 중립화하여 다양한 계급과 사회집단이 사용하는 정치적인 틀인 언어, 개념, 범주, 사유의 상, 재현 체제들로 정의하고 있다.[6] 아울러 버밍험 연구소의 홀은 자마이카 출신이었고, 동 연구소에서 연구한 에드워드 톰슨(Edward Thomson)이 흑인이었다는 점은 문화연구 자체가 다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사회의 다문화화는 이제 본격적인 문화연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제 다문화 관련 내적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상담 분야에 있어서 개인적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내면적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 차원에서만 극복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아정체성 확립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이념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의 갈등과 이념적 혼란 등 내면적 갈등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가족 갈등

다문화 사회에서 접하는 갈등은 가족 공동체내에서 자주 발생한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다

5) 안용성, "문화연구와 성서연구:해석학 맥락과 윤리"『기독교사회윤리』제9집 (서울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5) p.33 참조.

6) Stuart Hall, 임영호 역, "이데올로기의 문제: 보증 없는 마르크스주의,"『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서울:한나래, 1996) p.31 참조.

www.kci.go.kr

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사실 가족은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한국 정부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적, 행정적 지원 등의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전개된 가장 대중적인 원인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등과 연관된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의 집단적인 결혼이주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는데, 잘 적응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 내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해 갈등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7)]

그런데 가족 갈등의 상황은 내국인과 이주자들의 소통의 문제에 기인한 차원에서뿐 아니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발생함을 주목해야 한다. 즉 경제성장과 세계화에 따른 해외 진출에 기인한 해외결혼, 외국방문, 유학, 사업을 위한 외국의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인들 내부에서도 갈등과 소통 부재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유학이나 주재원 등으로 장기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태어난 2세들, 이민 2, 3세 등은 가족 구성원 내부에서 갈등의 문제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생활 습관과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생활에 있어서 이중언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두되고 있다.

이제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온 '단일민족'의 신념 혹은 신화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측면과 '고토회복'의 분위기를 풍기는 민족주의 운동 등을 통해 또 다른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갈등의

7) 지난 2010년 7월 11일 20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시집온 지 8일 만에 심각한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살해된 경우 등, 학대 및 폭행 사례가 등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www.kci.go.kr

양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갈등

가정 혹은 가족의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가정에서 풀리지 않은 갈등의 문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정과 관련되지 않은 차원에서도 다문화 사회는 여러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다. 즉 우리 사회의 다문화 논의는 지나치게 인구학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즉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으로 논의된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나, 지나치게 소위 '관주도형'의 논의가 되어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충격과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의 해소 방안을 논하는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대증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 지향성과 정체성 등을 재정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을 오리엔탈리즘의 극복 차원에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국가적 성격, 소수자 문제, 사회적 배제, 인권, 시민권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기존의 한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시각과 담론을 통해 논의되고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과 관련된 고용 구조의 변화, 경제 체제의 변화 등을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 극복은 소위 관 체제의 논의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 문화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복수성으로 이해하고, 통관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및 성숙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분의 사회가 경험하듯 언어소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언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www.kci.go.kr

가르칠 것인가라는 공용어의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세 차원으로 언급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문화에 대한 통관문화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독교와 연관시켜서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문화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같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없이 기독교란 종교의 생존 및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제시한 다섯 유형에서 어느 특정한 유형만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 니버 자신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문화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작하다'(cultivate)는 어원과 관련되어 자연에 인공적인 노력을 가하는 것이 문화라는 이해보다는, 문화의 종교적 의미를 제시해 주는 '제사하다'(cul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문화는 독립적이지 않고 언제든 상호문화적(혹은 통관문화적)," "intercultural"(or "transcultural")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문화는 경계 안팎에서 상호교류, 충돌, 전이, 지배, 호환 등의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잃지 않은 채, 이질적인 주변문화들과 폭넓게 소통함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경우 이미 그 체계 속에 다문화사회를 통관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신념체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주민들의 언어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모국어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www.kci.go.kr

에 이주한 대다수 여성들과 이주민들은 출신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있다. 이주 초창기에 여건이 불비했을 때에는 그들이 자국 문화에 대한 전수나 소개 등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를 갖게 된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교육과 소개의 의지를 갖고 있다.[8] 기독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문화 가족의 지원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관을 갖고 오래전부터 접근해 왔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보급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다문화사회 논의에 있어서의 비판적 담론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다문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 매체에서도 다문화 사회를 거론하면서 제작, 방영되는 프로그램 제법 볼 수 있다. 그러나 말의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실천이라는 측면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관련학자들이 논하는 다문화 혹은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비판적 성찰들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한건수는 "비판적 다문화주의"란 글에서 한국 사회의 이주민 증가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인적 구성이 갖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는 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9] 첫째, 한국 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이주민 대부분은 몇몇 국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셋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출신 국가와 직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이들의 국내 생활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차별화된다. 즉 한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급속히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일종의 경향성을 갖는 탓이다. 일부는 소위 상층민들에게만 관심

8)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경우 1976년 5월 21일 서울 중앙성원을 개원한 이후, 현재는 광주, 인천, 대구, 마천, 마석, 김포 등 전국에 5-60여개의 임시 예배처가 있다고 한다.(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islam.org 참조)

9) 한건수, '비판적 다문화주의'『다문화사회의 이해』(서울 : 동녘, 2007), p.135 이하 참조.

www.kci.go.kr

을 갖고, 일부는 하층민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계층적 편향성을 드러낼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IV. 다문화사회 발전의 단계적 접근과 통관문화적 적용 모델

다문화사회에 대한 단계적 접근과 통관문화적 적용 모델

단계	주요 정책목표	구체적 정책 및 실천 방안	적용 모델
1단계	인식	다문화 인식 및 국제 이해교육의 필요성 확인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에 대한 기본 이해와 담론 제기 다양한 문화해석 논의 및 지원	통관문화 인식확산
2단계	교육	국가 기관의 다문화·다양성 교육 한국인 대상 다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제이해교육 지원 외국인 대상 한국 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통관문화 이해교육
3단계	소통	외국인 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체계 구축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행 외국어의 공용어 논의, 이중 언어교육	통관문화 언어소통
4단계	확산	체험 중심의 다문화교육 확대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 지원과 정책적 제안 국제이해와 교류, 경험기회 제공을 위한 실천 확산	통관문화 교류확산

첫 번째 단계 및 적용모델은 인식을 정책목표로 하는 통관문화 인식확산의 모델이다. 이제는 타자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을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존경과 관심은 그의 성격, 외모, 심리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다름 때문이다.[10] 그동안 한국 사회와 교회는

10) 구약성경에는 과부와 고아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는 거의 언제나 '나그네(이방인)'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나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예레미야 22장3절)

www.kci.go.kr

다문화 문제를 주로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던 관점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인식의 차원에서 문화와 신앙 등과 관련시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 민족에게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족종교가 세계종교로 발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 기독교의 경우도 교회 안에서 조차도 유대파와 헬라파의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초대교회의 집사 선출과정 등을 보면 기득권을 가졌던 집단이 새로 유입되는 집단을 배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하는 통관문화적 인식확산의 모델이 제시 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기초로 배려와 공존의 덕목 등 다양한 윤리적 실천에 관한 논의들도 파생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풍성한 다문화 담론은 오히려 역인종차별주의(reverse racism)를 합리화하거나 특정인의 우월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사실 차이와 다양함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조물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으며, 특히 인간은 그 누구도 동일한 존재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복제인간' 이란 말도 편의상 논의된 것이지, 인간의 개별성과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에 기초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모두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나름대로의 구획을 설정하고 '끼리끼리' 뭉치기를 실천해 왔다. 물론 이런 태도는 나름대로의 기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 단계 및 적용모델은 인식을 정책목표로 하는 통관문화 이해교육의 모델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 관련 논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관련 기본권 보장 문제, 부정직한 소개자들에 의해 온 결혼이민자들과 관련된 폭력 및 학대 문제, 이주동포 및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 문제 등 거론하기 부끄러운 수준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다. 물론 아직도

www.kci.go.kr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외국인들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들은 많이 보완 되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관련 문제도 많이 해소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다문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도 좋아졌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제정되었는데, 결혼가정 이민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사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인 결혼가정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새터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시민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이해 교육과 그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정책에 대해 고졸 이하는 보통이다,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들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이해 정도도 학력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되기 쉬운 시각을 버리고 문화의 다양성과 단일성,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의식전환과 통관문화 이해교육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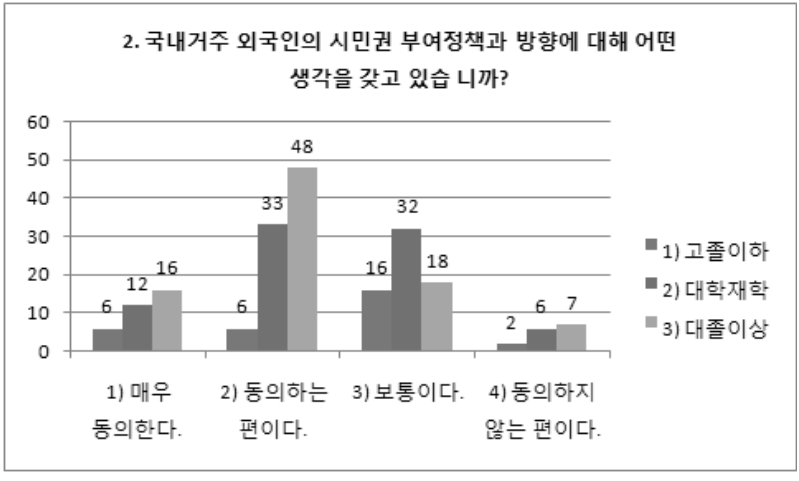
국내거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의 응답에 학력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고졸 이하 16명(53.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대졸 이상 48명(53.9%)가 동의하는

www.kci.go.kr

3. 학력	2. 국내거주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정책과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체	카이제곱 (유의확률)
	1) 매우동의 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보통 이다.	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 고졸 이하	6	6	16	2	30	15.953 0.014
	20.0%	20.0%	53.3%	6.7%	100.0%	
2) 대학 재학	12	33	32	6	83	
	14.5%	39.8%	38.6%	7.2%	100.0%	
3) 대졸 이상	16	48	18	7	89	
	18.0%	53.9%	20.2%	7.9%	100.0%	
전 체	34	87	66	15	202	
	16.8%	43.1%	32.7%	7.4%	100.0%	

편이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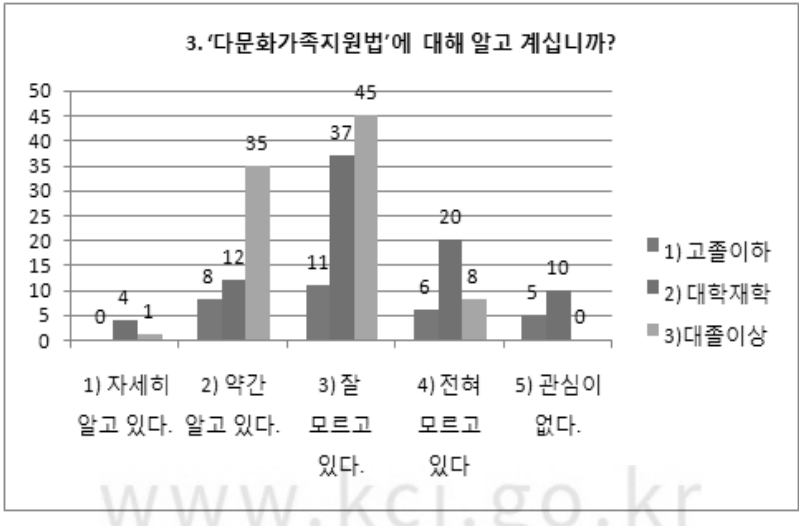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www.kci.go.kr

3. 학력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전체	카이제곱 (유의확률)
	1) 자세히 알고 있다.	2) 약간 알고 있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5) 관심이 없다.		
1) 고졸 이하	0	8	11	6	5	30	32.488 0.000
	.0%	26.7%	36.7%	20.0%	16.7%	100.0%	
2) 대학 재학	4	12	37	20	10	83	
	4.8%	14.5%	44.6%	24.1%	12.0%	100.0%	
3) 대졸 이상	1	35	45	8	0	89	
	1.1%	39.3%	50.6%	9.0%	.0%	100.0%	
전체	5	55	93	34	15	202	
	2.5%	27.2%	46.0%	16.8%	7.4%	100.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응답에 학력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 〈 0.05) 학력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고졸 이하 6명(20%)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 35명(39.3%가 약간 알고 있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세 번째 단계 및 적용모델은 인식을 정책목표로 하는 통관문화 언어소통의 모델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과정은 출신국가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주민 대부분이 소수의 국가에 치우쳐 있는 특징이 있다. 이주민 대다수가 소위 조선족과 관련이 있는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다인종화와는 거리가 먼 다민족 문화 개념으로 다문화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하는 일에 따라 계층화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한국인들에게도 별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다. 반면 아시아권 국가에서 결혼 이민자들로 들어온 사람들이 겪는 고민은 사회의 계층구조와 연관되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소위 오래전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선진 국민들은 거주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있어서 별로 제한받은 것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이들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에 시달리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계 및 적용모델은 인식을 정책목표로 하는 통관문화 확산교류의 모델이다. 한국 사회는 오랜 동안 단일민족 국가를 이루고 살았고, '순혈주의'에 대해 상당한 긍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를 이룬 확산교류의 모델을 기독교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즉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의 종족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태동한 종교이기 때문이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가능한, 유대인 중심의 종교체계이다. 즉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이방인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서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세계종교가 된 것이다. 힌두교의 종족적 한계를 극복한 불교의 경우도 비슷한 모델에 해당할 것이다.

www.kci.go.kr

확산교류는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경험만큼 사람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교류 경험의 제공 및 확산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에는 한국인들의 다양한 역사적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피상적인 다문화 지향성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위험성과 다양한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여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인권 억압이나 여성 차별을 유지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미명 하에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거나 동정의 대상으로 고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 관련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각국 요리대회, 음식축제나 전통의상 행진 등이 과연 다문화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더욱 큰 선을 그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보면서, 다문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 갈등 현상을 정리해 보았다. 한국사회 다문화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내면적 갈등, 가족 갈등, 사회적 갈등 차원에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한 네 단계의 소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든 모델에 있어서 공통되는 대전제는 '통관문화적' 관점 혹은 이해의 필요성인데, 특히 통관문화적 언어소통 모델이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긴요하고 많은 논의를 일으킬 모델일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통관문화적 언어소통 모델 등 네가지 모

www.kci.go.kr

델을 제시한긴 했지만 그 구체적인 전개는 후속 논문으로 미루어야 하겠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을 기초로 개념, 모델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www.kci.go.kr

참고문헌

Cheong, C-S Abraham. *A Dialogic Reading*. New York/Washington, D.C./Baltimore/ Boston/Bern/Frankfurt am Main/Berlin/Brussels/Vienna/ Oxford:Peter Lang, 2001.

Gilliland, D. S. *The Word Among Us: Contextual Theology for Mission Today*. Dallas/London/Sydney/Singapore: Word Publishing, 1989.

Nida, Eugene A. and William D. Reyburn. *Meaning Across Cultures*. Maryknoll: Orbis, 1981.

권재일.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한말연구』 제11호, 한말연구학회, 2002. 12.

국립국어연구원., 「특집: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새국어생활』 제1권 제2호, 1991.

김민화 · 신혜은. 「다문화가정 취학 전 유아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兒童 學會誌』 제29권 제2호, 한국아동학회, 2008.

김범수 외. 『다문화 사회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양서원, 2007.

김병순.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18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8.

김성곤. 『다문화시대의 한국인』. 열음사, 2002.

김해옥 · 김하수. 「다문화시대의 한국문학을 통한 언어문화 콘텐츠 구축에 관한 연구」. 『현대문화의 연구』 제28권. 한국문학학회, 2006.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6권, 한국동북아학회, 2008.

김홍운 · 김두정.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제34권 제3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7.

리차드 아페바움, 김지화 역. 『사회변동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1994.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2.

박경동.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제18권, 청소년문화연구소, 2008.

박병섭. 『다문화주의 철학: 이주민과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실크로드, 2008.

www.kci.go.kr

박영민 · 최숙기.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34권, 청람어문학회, 2006.

박철웅. 『다문화사회현황과 청소년정책. 제4차 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청소년관련 4개 학회 공동정책토론회, 2007.

서혁.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제12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7.

설동훈.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선결해야 할 조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송재룡. 『포스트 모던 시대와 공동체주의』. 철학과 현실사, 2001.

스튜어트 홀, 임영호 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아비샤이 마갈릿, 신성림 역. 『품위 있는 사회』. 동녘, 2008.

안용성. 「문화연구와 성서연구: 해석학 맥락과 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9집,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05.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오성배.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6.

유네스코아시아 · 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편.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교육의 현실과 전망』. 동녘, 2008.

이영주.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1호, 한국가족복지학회, 2008.

이성언 · 최유.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인혈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엘런 스위지우드, 박형신 외 역. 『문화사회학 이론을 향하여』. 한울아카데미, 2005.

장인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모형탐구」. 『초등교육연구』 제21권 2호,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8.

정하성 외.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양서원, 2007.

조선경. 「이주민 한국어교육 사업 영상보고 및 향후 사업 방향」.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조영달 외.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006.

진은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권」. 『철학』 제95권, 한국철학회, 2008.

최관경. 「다문화 시대의 교육적 과제: 무엇을 위한 다문화 교육인가」. 『초등교육연

www.kci.go.kr

구』 제22권,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7.

최미숙 · 김경숙 · 윤현숙. 「다문화교육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 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제17권 제2호, 한국아동교육학회, 2008.

제임스 뱅크스, 모경환 · 최충옥 · 김명정 역.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크리스 로젝, 최석호 외 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여가』. 일신사, 2002.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국제 심포지엄 미래사회의 다문화가족』. 평택대학교, 2007.

한글학회. 「특집: 세계 각국의 한국어 연구 현황과 교육 방향」. 『교육한글』 제10호, 1997.

한상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허용 · 강현화 · 고명균 · 김미옥 · 김선정 · 김재욱 · 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8.

황정미 · 김이선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_____.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 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논문투고일 : 2010. 10. 29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확정일 : 2010. 12. 03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한국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연구자는 다문화 인식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다인종 및 다문화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자녀들에 대한 국적 부여, 외국어의 공용어 인정 가능성과 활용, 외국인들의 자국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인종, 다문화적 경향성이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3)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태도에 비해 외국인과의 교류 실천,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4) 외국인 이주자들의 증가 추세에 따른 갈등 발생에 대해 대다수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진행 과정에는 내면적 갈등, 가족 갈등, 사회적 갈등이 있고, 갈등을 극복해야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갈등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국제 이해교육의 강화와 교류 등을 통해 통관문화적 인식 확산, 이해 교육, 언어 소통, 교류 확산 등 네 단계의 발전 모델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다문화 사회, 공용어, 내면적 갈등, 통관문화적 인식 확산, 언어 소통

www.kci.go.kr